

Publication: Acrofan

Date: 11/04/2011

Subject: [Interview] Nan Chen, President, MEF

<http://www.acrofan.com/ko-kr/live/content/20110411/0803030201>

[취재] 넷이벤츠 인터뷰 : MEF 난 첸 회장

[종목] 행사 [분야] 통신/뉴미디어 [작성자] 류재홍 [작성일] 2011.04.11. 20:30

지난 2011년 4월 6일과 7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랑카위 안다만 호텔(The Andaman Hotel, Langkawi, Malaysia)에서 '2011 넷이벤츠 아시아태평양 기자간담회(2011 NetEvents APAC Press Summit, 이하 넷이벤츠)'가 개최되었다.

넷이벤츠는 통신 및 네트워크, 보안 기업의 C 레벨 임원들과 관련 시장조사기관이 한 자리에 모여 업계 동향 및 각 기업의 전략 등을 소개하는 정기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는 멘티프라이즈 네트워크링, IT 보안, 무선 기술, 영상 회의, 클라우드 컴퓨팅, 차세대 통신망, 통신 인프라 등 업계 이슈에 관한 기업 및 시장 조사기관의 발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되었다.

넷이벤츠는 키노트 등으로 구성된 정규 프로그램 외에, 연사들과의 인터뷰 순서가 앞 일간에 걸쳐 마련되었다. 아크로팬은 대한민국 공동취재단의 일원으로, MEF(Metro Ethernet Forum) 난 첸(Nan Chen) 회장과와의 인터뷰 세션에 참여했다.



난 첸(Nan Chen) 회장이 수장을 맡고 있는 MEF는 이더넷 기술이 빠른 속도로 퍼지는 것을 추구하는 협회다. 캐리어 업체들이 이더넷 표준을 채택해 활용하는 것을 지원한다. 주요 업무는 표준 정의, 기술 세일즈 및 마케팅, 컴플라이언스 및 인증 등이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MEF는 177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85개 회원이 통신/서비스 업계에 있다. 글로벌하게 회원 가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도 회원 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전세계 최대 규모의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다 MEF 회원이라고 한다. MEF 가입 회원사들의 매출을 다 합치면 연간 1조 5천억 달러 수준이다.

MEF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한다. 2번은 미국, 1번은 유럽, 1번은 아시아 식이다. 유럽 지역의 분기별 미팅이 앞서 체코 프라하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지역 미팅은 오는 10월에 싱가포르에서 예정되어 있다.

난 첸(Nan Chen) 회장은 "이더넷 서비스는 10년 전에 0.6억 달러 수준으로 급성장했다. 성장 배경에는 MEF의 캐리어 이더넷의 기술정의, 표준제정이 있었다고 자부한다. 머지 않아, 전 세계 교관기들을 캐리어 이더넷 익스체인지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캐리어 이더넷이 널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서로 다른 국가끼리 인터커넥트 추구하는데, 캐리어 이더넷이 효과적이어서다. 전문가 인증 프로그램도 편성을 통해 하는 데, 금년도에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연말에 회원사가 200여 곳을 넘을 것 기대한다고 말했다.



Q1. (아크로팬) 스나미와 같이 해지케이비에 영향 미치는 자연재해나, 로컬에서 로드블렌싱 장애 등에 대응되는 표준이 있는가? 서비스나 인프라 등에 대한 권장척도가 있다면 소개해 달라.

MEF에서는 캐리어 이더넷 활동을 하면서 리라이어빌리티를 권장한다. 트래픽이 여러 서비스 프로바이더 간에 리우팅 되도록 한다. CEE(캐리어 이더넷 익스체인지)를 하나에 다 위에서 움직인다면 이게 싱글포인트가 되면서 취약성 문제가 발생한다. 여러 개의 익스체인지로 인터커넥트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Q2. (아크로팬) 음성통화를 IP 환경에 대응 하면서 디지털화 면 보안, 사생활 이슈 등이 나온다. 이 부분은 법, 정부 규제로 국가별 편차가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은 어떠한가?

MEF가 여러 국가에 정부들과 초기 대화를 할 때, 기초를 국가에서 이행이 되도록 확실하게 해나가고 있다. 초기 대화단계부터 그렇다. 보안, 개인정보 보호가 캐리어들에서 구현되게, 곁받하게 하는 노력을 처음부터 기울인다.

Q3. (아크로팬) 회원이었던 KT 임원이 나간 이후로는 한국에 회원이 없다. 현재 방통위 등 정부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다. 한국을 대상으로 조직 홍보를 잘못했다. 오는 6월에 MEF 멤버들이 아미지역에 오는데, 그 때 방문국가를 한국으로 삼았다.